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깜깜이’ 진행

환경부, 19일 재보완 요청했지만 구체적 내용 합구 초안 공개 후 문건 유출 민감 반응... “투명 공개를” 최종 결정 후 절차 투명·정당성 문제 불거질 우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 내용은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도민들이 불투명한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동의·부동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찬반 양측으로부터 절차의 투명성·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완 요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두 부처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22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제주지역 제2공항 반대 단체도 정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으며 비공개 대상이다. 협의 완료 후 공개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두 부처에 내용 공개를 요구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는 사실 뿐이다. 하지만 앞서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이외에도 환경부하량 증가 및 관리대책, 관련계

획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은 계획과 추진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키워가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며 훼손된 제주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 제주도민, 국민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가 알려진 뒤 도민 공론화 추진 여론이 급속히 커진 것이 부담이 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의 논란을 피해 가려다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 결과를 3년 반 동안 비공개했다가 논란이 돼 조사 검토위원회를 가동했다.

서울=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정성으로 만드는 동지팍죽 동짓날을 맞아 22일 제주민속촌 관계자들이 방문객들에게 나눠줄 팍죽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선조들은 동짓날 팍죽을 쑤어 차례와 함께 집안을 지켜주는 주요 가신(家神)에게 올린 후 가족이 나눠 먹으며 무사 안녕을 빌었다. 이상근기자

“어려운 관계 상황속 교류 적극 추진”

20~21일 제28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들이 양국의 불편한 관계속에서도 지속적인 우호 관계 유지를 통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제28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21~22일 양일간 일본 나가사키현 일원에서 열렸다.

한일 8개 시도현(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사가현) 지사 및 시장이 참석한 이번 지사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공동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지역의 시책 소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해협 8개 시도현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일자리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각 시도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향후 보다 발전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일자리 여건 개선과 고용 활성화 대책인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창업보육공간 확충, 친환경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제주의 일자리 창출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고용

대책으로 취업 지원과 목돈 마련, 주거 지원의 ‘청년 3중 세트’와 혁신인재 양성 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도현지사들은 합의된 공동성명문을 통해 앞으로도 한일관계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며,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상윤기자

“해녀학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필요”

본보, 해녀문화 세미나 주관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서 진행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해녀문화 보존방안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가 20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라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 주제 발표와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용근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한라일보는 지난 3년동안 제주 출향해녀의 지난한 삶을 기록해 왔다”며 “앞으로도 제주 출향해녀문화 보존 방안 마련과 제주해녀 출향사를 연구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1부 첫 발제에 나선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제주

출향해녀의 다양한 물질방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0~70년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제주 출향해녀는 해녀문화를 물려 확장했던 주역”이라며 “현재까지도 동해·남해·서해 해산물 채취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대로 해녀취재팀장은 ‘제주 출향해녀의 삶에 대한 고찰’이란 발제를 통해 “제주 출향해녀들의 고령화가 심각해 해녀문화의 명맥이 끊길 우려에 처해 있다”며 “해녀학교 운영 확대와 타 지자체 지원 유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2부는 강만생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의 사회로 강애심(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장, 고흥섭 부산도민회 총괄부회장, 강성복 충청민속연구소장(서해안 해녀 연구가), 조동근 제주도해양수산국장, 흥경찬 작가(물고기 간 해녀 저자)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태윤기자

제주4·3 국민 인식도 80% 넘어서

갤럽, 2017년 68.1→2018년 78.7→2019년 82.9%

5·18민주화운동 이어 두번째... 관심도 60% 육박

제주 4·3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가 80%를 넘어서며 2년새 15%p 가량 높아졌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전국민 제주4·3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제주4·3’ 국민 인식도는 82.9%로 작년(78.7%)보다 4.2%p 증가했다.

4·3을 포함한 한국현대사 주요 사건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는 ▷5·18 민주화운동(99.1%) ▷노근리양민학살사건(69.5%) ▷여순사건(67.7%) ▷보도연맹사건(43.2%) ▷대구10·1사건(34.6%) 순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이어 두번째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특히 2017년부터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제주4·3’의 증가세(+14.8%p, 68.1→78.7→82.9%)가 두드러져 최근 제주4·3관련 사업의 다변화와 흥

보 노력이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고 4·3평화재단은 분석했다.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또한 59.5%로 지난해(47.4%)보다 크게 높아져 인식도 상승세와 궤를 같이했다.

4·3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양민학살(52.4%), 항쟁(9.8%), 사건(8.7%) 등의 순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았다.

제주4·3 해결을 통해 실현해야 할 가치로 인권신장(42.0%), 정의구현(32.6%) 순으로 답해 지난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4·3을 알리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방송프로그램(62.5%)을 꼽았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4~6일(3일간) 사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조사를 했고, 응답률 11.9%, 표본 오차 ±2.5%포인트, 신뢰수준 95%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謹賀新年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더 많은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늘
MG새마을금고가 함께 하겠습니다